

코로나 영웅들 완도서 ‘해양 치유’ 재충전

완도군, 의료진·자원봉사자 111명 대상
‘해양치유·관광체험프로그램’ 실시
97% “건강해진 느낌, 만족해요”

완도군이 코로나19 방역에 애쓴 국민 영웅들을 대상으로 ‘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했다.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과 방역업체 관계자,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2박3일 동안 ‘해양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 7월 29일 시작해 이달 2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39가구, 111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해양 레저, 섬 관광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첫날은 세계질 힐링 자원이 풍부한 국내 최대 난대림 완도수목원을 찾아 치유의 길을 걷고, 문패 만들기 등 공예체험과 판소리 공연을 관람했다.

둘째 날은 슬로시티 청산도를 찾아 해뜨는마을, 돌담마을, 서면재 활영지, 범바위 전망대 등을 둘러본 후 다도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완도타워를 방문해 짜릿한 짜릿함을 체험했다.

셋째 날은 친환경 해변에만 주어지는 국제인증인 블루플래그를 2년 연속 받은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해양치유를 했다. 명사십리 해변은 산소 음이온 발생량이 전국 최대이며 해랑에



완도군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해양치유·관광 체험 프로그램’에 코로나19 방역에 애쓴 국민영웅들이 참가, 해변 필라테스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있다. <완도군 제공>

어로줄이 풍부한 곳으로 해변 노르딕워킹과 필라테스, 명상, 완도에서 생산되는 꽃차 시음 등을 한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85%, ‘만족’이 12%로 9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고 가 많은 국민 영웅들에게 해양치유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면서 “더 많은 국민이 해양치유를 통해 힐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햇김 해우탕’ 코로나 치료 의료진에 전달

해남군, 미남도시락 2020개
경기 안산시·강진 의료원에 배달

해남바다의 첫 선물, 햇김으로 만든 해우탕이 전국 법차로 전달된다.

해남군은 ‘제2회 해남미남축제’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강진 의료원 등에 미남도시락 2020개를 전달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락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건의료진에게 땅끝해남에서 전하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마련했다.

해남군은 10월 말부터 한 달가량만 생산되는 햇김인 곱창김으로 만든 해우탕을 주메뉴로 해 땅끝의 정이 담긴 도시락을 준비했다.

해우탕은 싱싱한 물김(해우)을 된장에 풀어 호로록 끓여낸 토속음식으로, 햇김이 생산되는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해남미남축제를 앞두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레시피를 개발한 해남전북해우탕이 올해 대한민국 국제음식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최고급 쌀인 ‘한눈에 반한 쌀’로 지은 밥, 명품 해남배추김치, 미네랄의 보고 세발나물, 전복, 민물장어, 고구마, 한우 등 해남의 대표 먹거리들도 총출동한다.

코로나로 지친 방역요원들에게 응원을 전하는 한편 코로나로 인해 축제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해남미남도시락 밥차’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햇김인 곱창물김으로 만든 해남 해우탕.

미남도시락은 광주시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과 해남지역 노인요양시설 및 부랑인시설 등에도 배달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먹거리 축제의 의미도 살리고 코로나로 힘든 이들을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건강한 해남을 담은 도시락을 직접 찾아가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처음 개최해 14만여 명이 찾은 해남미남축제를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온·오프라인이 결합한 스마트 축제로 연다. 행사 기간은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열린다.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인 해남의 정성과 맛을 담은 도시락 배달과 함께 박찬일·박준우 셰프가 참여하는 온라인 미남푸드쇼, 인플루언서가 전하는 랜선미식여행 등을 축제 기간 선보인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세계 첫 ‘김 양식 3모작’ 가능해진다

목포 중소기업 대양에스씨
‘김 종자 스마트 배양장치’ 개발

목포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김 양식 3모작’을 할 수 있는 배양장치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29일 목포수산물지원센터 입주기업인 대양에스씨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는 장마와 이상기온 등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배양에 필요한 최적의 생육환경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김 종자 스마트 배양장치’를 개발했다.

대양에스씨가 개발한 스마트 배양장치는 수온과

조도 등을 조절해가며 성숙 억제·촉진 또한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어 연중 원하는 시기에 맞춰 우량 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 양식 시설에 대풍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스마트 배양장치를 통해 김 종자를 재공급할 수 있어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다.

특히 AI 기반의 김 종자 성장 상태를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빠른 치료도 가능하고, 배양장치를 다단으로 쌓을 수 있어 적은 면적에서도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 김 종자 배양방식은 연간 1회만 생산했으나 스마트 배양장 도입으로 종자 공급이

어려웠던 4월에도 김 종자를 생산·공급할 수 있어 세계 최초로 김 양식 ‘3모작’이 가능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대양에스씨는 이 같은 스마트 배양장치를 국내 최초로 제안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20 해양수산 창업콘서트’ 사업화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승환 대양에스씨 대표는 “김 산업은 부가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절실하다”며 “김 종자 생산에 최적화된 첨단 시설과 스마트 배양장치 등을 국내에 보급해 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국립공원공단 단속원들이 드론을 활용해 무인도 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해상공원 내 무인도 불법 야영·취사 ‘드론’으로 잡는다

진도 조도지구서 불법행위 단속

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에서 야영·취사 등 불법행위가 빈번해지자 환경당국이 무인기를 활용한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남 남해안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내 무인섬 일대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및 특별보호구역의 무단 출입, 취사,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인기 등 첨단장비로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15~20명으로 해상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하고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총 1263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야영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사행위 297건, 출입금지 위반 17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부두 등 접안 시설이 없는 무인섬에 불법으로 출입할 경우 생태계 등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발생위험도 매우 높아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가 ‘흑산홍어 썰기학교 수료식’에서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있다.

흑산홍어 썰기학교 수료식

6개월 과정 거쳐 15명 배출

신안군은 6개월 과정의 ‘흑산홍어 썰기학교’ 수료식을 통해 15명을 배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물 판로 개척사업으로 시작한 흑산홍어 썰기학교는 고령화에 따라 명절이나 주문량이 많은 시기에 홍어 썰는 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18일부터 운영된 흑산홍어 썰기학교는

지난 22일 홍어썰기 평가를 마지막으로 6개월여의 교육일정을 마쳤다.

최서진 흑산홍어 썰기학교장은 “홍어의 손질 및 썰기 방법의 계승보존과 명절, 관광철 적기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홍어썰기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간 차원의 자격을 부여해 주도록 신안군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최대 283t의 어획량을 자랑하는 흑산홍어는 올해 10월 현재 223t이 생산돼 40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또 본격적인 홍어절인 겨울에 어획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